무주 태권도원 가는 길 확 트인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국도30호선 개선공사 12월까지 완공

2017년 6월 세계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진입하는 국도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도30호선 태권도원 진입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오는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당초 내년 5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2017년 세계태권도 대회를 감안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구간은 선형 불량과 높은 경사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차량 통행에 어려움도 많아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국도30호선 태권도원 진입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착공했다. 전체 공사는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에서 청량리 구간 중 3개소(기곡, 길산, 청량)의 선형을 개선하게 된다.

기곡지구 국도의 선형 개선현장

총 1.50㎞에 30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위험도로 개선사업 외에도 무주읍 오산리에서 설천면 소천리에 이르는 16.5㎞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 공사도 6월에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장복수 소장은 "태권도원 진입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되면 방문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태권도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특히 내년 세계태권도대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주변도로를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등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가능한 지원활동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물관리자동화사업은 정보통신(IT) 활용해 원격제어와 감시등이 가능토록한다

대아호 물관리 자동화사업 추진

농어촌공 전주완주임실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창호)는 대아호 관리소 물관리 자동화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물관리자동화사업은 저수지와 양·배수장,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에 정보통신(IT) 활용, 상황실에서 농업기반시설물을 원격제어와 감시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창호 지사장은 "이번 물관리자동화사업 추진으로 물관리의 과학화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나아가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올해 해전배수장(완주군 삼례읍 해전리)등 3개소와 후정제수문(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개소 등 총 4개소에 물관리 자동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광영기자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부족 사진 프로젝트'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가족보다 많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고 있는 동료들과 '동료는 또 하나의 가족이자 소중한 인연'임을 되새기며 '부족(部族) 사진 프로젝트'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만금사업단은 동료들과 친밀감을 더하고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시간 이후 각 부별 촬영을 진행했다. 특히 부별 특색을 살리기 위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직원들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한 직원은 "동료들과 즐거운 사진 촬영을 하면서 좋은 추억이 되었고, 특히 동료 의식을 많이 느꼈다"고 말하고 "부족(部族) 사진을 보면서 더욱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협업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이번 다문화 가정 한국문화투어에서 참여자들은 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비빔밥 만들기, 전통한복 입어보기, 한지부채 및 손거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북은행, 다문화가정 한국문화투어 '호응'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와 아동 등 40여명 전주한옥마을서 문화체험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3일(토) 전주한옥마을 일대와 전주한옥생활체험관에서 '2016 제2회 다문화가정 한국문화투어' 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체득하고 미래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와 아동, 대학생 자원봉사자 40여명은 멘토와 멘티로 조를 이뤄 전주한옥마을 일대 유적지에서 퀴즈를 풀어보는 한옥마을 미션 투어, 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비빔밥 만들기, 전통한복 입어보기, 한지부채 및 손거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김제와 임실지역 등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가정이 행사에 참여해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제에 살고 있는 츠힌친다 씨는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후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한도 확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10월 31일까지 월 50만원 상한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개인구매 한도를 확대 추진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침체 및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방안'을 마련 했다. 개인할인(5%)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월 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기간은 이달 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동안이다.

상품권 구매편의를 위해서 신한은행 전국 850개 지점 등 취급 금융기관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전국 13개 은행 6,600여개 지점에서만 구매 가능했다.

또 전통시장 방문 없이도 지역특산품을 구매 가능토록 우체국쇼핑, 이지웰페어, 인터파크, 피쉬세일, 제주전통시장, 케이티엠(KTM)몰, 이(e)-제너두 등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7곳을 하나의 통합플랫폼(http://on-tongkr)으로 구축해 품목별 실시간 가격비교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신광영기자

중년 베이비부머 대상 창업교육 수료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일 도내 중·장년층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4050행복창업프로젝트' 창업확정형 창업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30시간 교육으로 진행됐고 전체 교육생 27명 가운데 25명이 수료했다.

교육은 창업마인드, 세무 및 자금활용법, 사진·동영상 편집기법 등의 SNS활용법, 사업화교육 등으로 꾸려졌다.

특히 전담 멘토제를 도입, 교육생과의 밀착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부실창업을 미연해 방지한다는데 중점을 뒀다. 한편 '4050 행복창업프로젝트'는 매년 4회 장·단기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신광영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할 기업·청년근로자 수시모집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5일 전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근로자는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기업은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중 3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적립하게 되며, 근로자가 매월 12만5,000원씩 24개월간 별도 납입한 300만원이 더해져 2년 만기 후 총 1,200만원 이상(이자 별도)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일시 수령하게 된다.

참여대상기업은 5인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가능하며(일부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구직자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기타 참여기준은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준과 동일하며, 올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이미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도 정규직전환일이 7월1일 이후인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신청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인턴 홈페이지(http://www.work.go.kr/intern/)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hcplan.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광영 기자